

# 6월준공 서두르는 「과학기술진흥센터」 "500만 과학기술인의 宿願 30년만에 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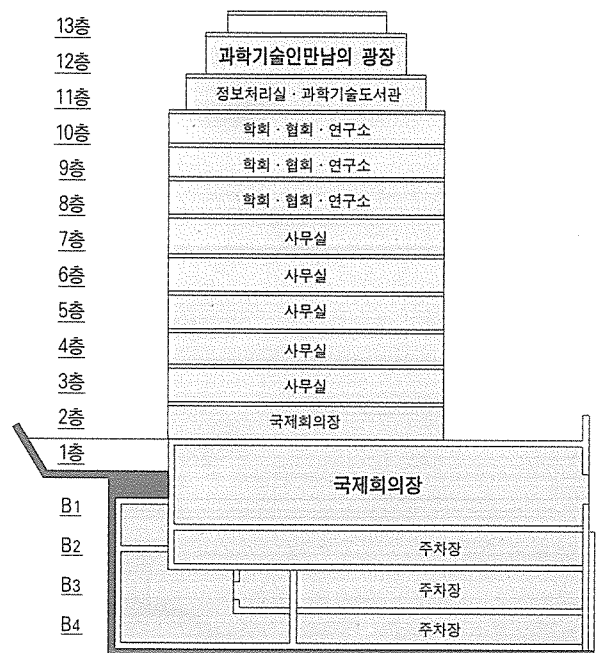
鄭 助 英 건립추진위원장



■ 대담 : 이권 홍보실장  
■ 일시 : 1995. 2. 15  
■ 장소 : 과총회의실

- 과학입국 · 기술자립의 意志
- 대기업의 관심과 적극참여 기대
-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

“ 테헤란로 언덕위에 우뚝서는 「과학기술진흥센터」는 세계화로 가는 SOC(사회간접자본)로 과학기술진흥 발전의 핵심기반입니다. 착공3년 · 공정 78%로 준공까지의 마무리공사를 위해서는 「기념할 명명사업」 등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



▲ 과학기술진흥센터단면도

서울 강남 테헤란로 초입 원편 언덕위의 과학기술회관 바로 뒷편에 서서히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현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科總) 30년 역사의 정점에서 이제 막바지 정열과 땀이 뒤엉킨 열기로 가득하다.

해방이후 50년 동안 과학기술의 불모지에서 오늘의 「과학기술 한국」이 있기까지 5백만 과학기술인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집념으로 쌓아올린 과학기술진흥의 탑은 1960년대 이후 조국근대화의 초석으로써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을 현재의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과학기술은 전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세계 굴지의 수출국으로 부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기술과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비교우위의 실현에 획기적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적 성장발전의 뒤인길에는 아직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많은 과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고급두뇌 양성, R&D확보, 산학협동/기초연구 및 연구주체의 역할 분담, 과학교육 등 과학기술행정체계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과학입국 및 기술자립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명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절대적인 SOC(사회간접자본)로서의 우선순위에서도 결코 뒤쳐질 수 없는 관건으로 꼽히고 있음을 볼 때 지난 1990년 초부터 파충이 끈질기게 추진해온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불과 서너달 앞둔 시점에서 「과학기술진흥센터」의 건립추진위원장으로 등번호주하고 있는 鄭助英 파충 상임부회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통해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현황과 건립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당위성 등을 되새겨 본다.

## 세계화 앞당기는 SOC로

■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이 사업은 파충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계에는 올림픽공원과 올림픽기념회관이 있고 예술계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정부에서도 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제화·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 여러가지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과학기술 진흥이야말로 세계화를 앞당기는 핵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과학 없는 응용기술이나 생산기술은 사상누각과 다름 없지요. 남의 기술을 도입하고 모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자본과 기술의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과학과 기술은 결국 관련학문의 기초를 확실히 진작시키는 풍토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해방이후 1960년대 초를 지나 우리의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이후 지금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를 반성해 볼때 우리는 너무 외형적 그리고 가시적 성장에만 만족해오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모든 학문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고급두뇌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를 발표해서 객관적인 검증과 타당성을 얻어내고 또 상호정보교환을 통하여 보다 앞선 이론을 수용할때야만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학술·연구단체나 기관들이 1년에 적어도 1천회 이상의 과학기술관련 국제회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발표장소가 없어서

이 학교, 저 학교에 사정하고, 이 호텔 저 호텔로 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보다 못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오래전에 세계적 규모의 번듯한 국제회의장을 여럿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발전의 요체인 학술발표, 정보교환의 장이 이래서는 안되겠으며 과학입국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건립중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화로 가는 SOC'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역대회장단 총동원

■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의 역사적 배경과 건립사업이 있기까지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6년에 창립된 「파충」은 당시 朴正熙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현재의 역삼동 부지에 「과학기술회관」을 건립한 것이 1976년 9월입니다. 이곳에 2,500평의 부지를 활용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재정적 능력이 여의찮아 그 절반인 1,250평만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1980년대 이후 우리 과학기술계의 구심체적 전당으로서의 「과학기술회관」은 기능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요. 학회와 학술단체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각종 국내외 학술행사의 폭발적인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250평의 매입과 새로운 국제회의장의 건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파충에 몸담은 1978년 이후 줄곧 5백만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등장한 셈입니다. 다행히도 閔寬植 명예회장을 비롯한 전임 회장들

과 역대 임원 그리고 과학기술처 당국 등 정부와 국회의 깊은 이해와 지원으로 1990년 6월에 나머지 부지 1,250평을 최종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만 매입했을뿐 건립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과 관련된 토초세 부과 등 예기치 못한 난제들이 발생되어 당초의 계획을 앞질러 실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無에서 有를 창조한 大役事

■ 건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계획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신만고 끝에 부지는 매입했는데 건립비는 한푼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도 총 8,150평의 건축비 2백억원에 부대비용 50억원 포함해서 모두 2백50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이 문제는 누군가가 지상명령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달라붙지 않으면 결코 이뤄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뛰기로 결심을 한거죠. 1991년 1월에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건립위원회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건립추진에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로 1991년 6월 閱覽植 건립

기성회장 등 관련위원들과 함께 당시 민자당 金泳三大대표최고위원을 만나뵙고 건립계획과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여 건립에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재정경제원(당시 경제기획원), 과기처를 비롯한 정부관련부처와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국가사업으로서의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을 역설하고 건립비 지원을 줄기차게 갈구한 나머지 다소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총 70억원의 건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점 특별히 정부당국과 국회의 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부족한 공사비 80억 難題

■ 현재의 공사진척사항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역시 2백50억원이라는 막대한 건립비를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설계비도 없는 상태에서 1992년 10월에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고 현재까지 큰 탈없이 공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異蹟)이 일고 있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토목공사 중심의 지하공사와 골조등 내부 공사가 현재 7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6월에 준공이 무난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국고 지원금(70억원)과 자체 조달건립비(1백억원)를 제외한 약 80억원 정도가 현재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앞일이 큰 걱정입니다만 반드시 완공될 수 있다는 신념과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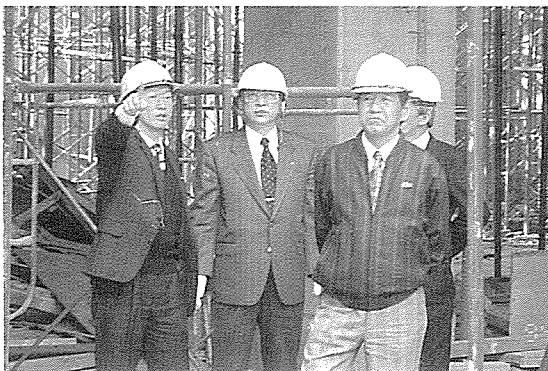
우리 5백만 과학기술

인의 숙원사업인 본 센터가 준공되면 국내에서 열고 있는 연간 1천여건의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각종 대중소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선진과학기술의 국내이전은 물론 산학연의 협동연구 및 활성화와 해외고급과학기술두뇌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체계화와 공유화, 정보교환의 장은 물론 남북과학기술교류의 장(場) 등 활용가치가 비할데 없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 부족한 80억원이라는 건립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현재로서는 무책(無策)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많은 대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의지를 표하고 있고, 成樂正회장과 金東一상임고문 및 과총 역대회장 등 건립위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단순한 과총회관 건립사업이 아니라 세계화, 국제화를 주도하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SOC 사업임을 모든 분들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진흥없이 국가발전과 세계화는 이룩할 수 없다는 대명제 아래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고 세계화로 가는 SOC인 「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을 완성하는데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 언론의 협력, 특히 대기업의 직접 참여를 통한 「기념홀 명명 사업비 지원」 등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5백만 과학기술인의 숙원사업인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오는 1995년 6월에 준공되어 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국민 생활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을 두손모아 기원드립니다. ㉞



▲정조영건립추진위원장(중앙)이 이우환건설본부장(왼쪽)의 안내로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있다.